

1010(월) 마태복음 21–23장 왕이 되려는 종들

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(21:10).

십자가와 부활을 향한 걸음이 뚜렷해질수록
적대자들의 반감과 저항도 본격화되었습니다.

무리들은 새로운 왕, 메시아를 환영했습니다(21:9).

정치적 혁명을 암시하는 <다윗의 자손>을 연호하며
제국으로부터의 독립과 해방, 구원을 요청했습니다.
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/순서/방법에 따라
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.

(21:12, 22:21,37–40, 23장)

사두개인들은 성전에서 <왕 노릇>하고 있었습니다.
성전은 제의/경제/행정 업무 모두를 전담하고 있어
인력/재정/권력이 모두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.
그들은 하나님의 명령과 본업을 뒤로한 채(21:13)
권위와 권한 갖는 일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.

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전유물로 여겼습니다(23장).
말씀을 통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는커녕,
율법적인 잣대로 영혼들을 정죄하고 위협하며
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.

그들은 왕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(21:23).
성전/율법을 통해 권력을 맛본 종교 지도자들은
<어린아이>가 아니라 <왕> 되기를 선택했습니다.*
왕이 되려는 종들의 왕국은 무너질 것입니다(21:38,24:1–2).
오직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만이 드러날 것입니다(24:3).

* 21:15–16, 22:15,29,35, 23:10–12

나는 어떤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?

- ① 하나님 사랑, 이웃 사랑에 총력을 기울입니까?
- ② 권위와 권한 갖는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마태복음 21–23장 (별첨 :사두개인과 바리새인에 관하여)

사두개인과 바리새인 : 성전과 율법의 권력

당시 예루살렘은 성전도시로 성전 광장만 14만㎡에 달했습니다(42,350평).
성전 완공과 동시에 2만 명의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정도로 거대한 규모였습니다.
성전 휘장을 정결하게 하는 데 300명, 성전 문을 닫는 일에만 200명이 필요했습니다.
유월절/오순절/초막절 순례 절기에 예루살렘의 인구는 평소의 7배로 치솟았습니다.
순례객, 환전상, 제의를 위한 동물/곡식들로 성전은 늘 붐볐고 분주했습니다.
성전은 조직/권력/권한/소유 등 모든 것이 집중되는 곳이었습니다.

대제사장은 신앙과 국가조직 양면에서 상징적인 수장노릇을 했습니다.
혈통과 가문에서 이미 특권층이었으며 성전/현실정치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했습니다.
산헤드린 공의회의* 수장이었고 유대인의 대표로서 로마제국과의 정치 교섭을 맡았습니다.
대제사장 아래 성전의 장, 24개 조직을 이끄는 24명의 제사장, 156명의 일직관리자,
7명의 상임감독, 3명의 회계담당자, 그 아래 24개 조직에 속한 7천 명의 평 제사장,
그 아래 율법학자와 1만 명의 레위인 등이 모여 성전 조직을 이루었습니다.

*산헤드린공의회 : 종교/민사 문제에 관한 법적, 행정적 권위를 지닌 조직

바리새인들은 헬라의 박해 아래 신앙의 정절을 지킨 <하시딤>의 후손들입니다.
그들은 유대교의 진보 진영을 대표하는 이들로서 종교적 순수성에는 엄격했지만,
헬라의 문화를 수용하여 구전 율법을 만드는 등 유연한 사고를 가진 자들이었습니다.
경건생활/정결법/추수/안식일/가족 임무 등의 분야에 구체적 지침들을 마련함으로써
백성들의 삶 가운데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.

사두개인들은 성전을 기반으로, 바리새인들은 회당을 기반으로 뿌리를 내렸습니다.
주후70년, 로마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사두개인들은 급격히 쇠락한 반면,
바리새인들은 랍비로서 유대교를 재조직하여 회당 중심의 강력한 세력을 형성합니다.
예수님의 사역 대상과 바리새인들의 사역 대상/지지층은 상당부분 겹쳤습니다.
예수님의 동선/사역 반경/대상/내용들로 볼 때 충돌과 갈등은 예상된 것이었습니다.

바리새인들은 6천 여 명에 불과했지만 엄격한 관리로 소수정예에 가까웠습니다.
사두개인들이 유력가문 출신이었다면 바리새인들은 상인의 후손으로 경제적 기반을 가졌습니다.
니고데모, 사도 바울 등 바리새인들은 사회적/종교적 언어 구사에 능숙했습니다.
백성들은 중요한 결정과 판단 때마다 율법 전문가인 랍비들을 찾아 조언을 구했습니다.
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과 잘못된 영적 지도를 책망하셨습니다.

_도널드 크레이빌, 예수가 바라본 하나님 나라, 복 있는 사람